

첨단 자동화 설비를 보유한 최강의 경쟁력을 갖추고
21세기 해양시대를 열어가는 현대삼호중공업.
'오늘 걸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는 격언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기술개발,
고객감동을 향한 열정과 더불어 안전보건을 경영의 주요소로 인식,
사업장 내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과 개선으로 조선강국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21세기 해양시대의 주역

현대삼호중공업



신대륙 발견의 상징인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 세계 일주를 완성한 미젤란의 빅토리아호 등을 볼 때 도전으로 쓰여진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선박이 함께 했다. 우리나라 역시故 정주영 회장의 도전과 불굴의 의지로 조선업계의 신화를 창조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 국내 조선업체는 세계 제1의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우리나라 경제를 든직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조선업계 중 현재 세계 5위 조선소에서 2007년 초일류 중공업 전문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을 만나보았다.

최첨단 선박 건조능력을 인정받아

1977년 인천조선소로 시작한 현대삼호중공업은 1990년 한라중공업, 1999년 삼호중공업으로 상호를 변경, 2002년 현대중공업 그룹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후 2003년 현재의 현대삼호중공업이 되었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 88만평 부지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은 세계 5위의 선박 생산능력을 보유한 조선전문 기업으로, 1996년 삼호조선소 첫 호선을 진수한 이래, KOSHA 2000 인증, ISO 14001 인증, OHSAS 18001 인증 등을 획득하였으며, 2002년에는 무역의 날 7억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업무는 크게 조선사업, 해양산기사업, 운반기계산업 등 3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사업 부문은 깊은 수심을 가진 화원반도에 둘러싸인 천혜의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2004년을 기준으로 24척의 선박을 건조하였고 33척의 선박을 수주하였으며, 177만 GT 건조와 515,000ton의 강재를 처리하였다. 특히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LNG/LPG선과 석유시추선, FPSO선 등의 고부가가치선 건조능력을 확대하여 최첨단 선박 건조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최대 1,100톤 탑재가 가능한 골리앗 크레인과 길이 500m에 달하는 초대형 도크시설, 3차원 입체설계 및 자동화 설비를 바탕으로, 최근 17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하여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도 강한 경쟁력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해양산기사업부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탐사 및 채굴에 필요한 설비와 각종 해상구조물을 제작·운송하는 해양 부문과 각종 산업기기의 제관 및 가공을 수행하는 산기 부문으로 나뉘며, 다수의 해양구조물을 성공리에 제작하여 인도한 해양 부문은 현재 영흥도 화력발전소 JETTY 시설용 JACKET 및 이어도 해상과학관측기지용 JACKET를 제작 중에 있으며 향후 FPSO, 해상교량 및 WIND TURBINE TOWER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산기 부문은 선박용 ENGINE BED & FRAME BOX, RUDDER 및 각종 POWER PLANT용 기자재의 제관 및 가공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운반기계산업부는 수많은 크레인과 운반설비를 제작, 납품해 세계 시장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기본설계에서 생산설계까지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 98년부터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2003년 말 개발을 완료하고 시제품 운전까지 성공적으로 마쳐 국내 업체로는 최초로 자동화터미널 시스템 및 장비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에 힘입어 2004년 부산 신시대 컨테이너 터미널 무인 자동화 크레인 5기를 수주하기도 했다.

안전보건을 경영의 주요소로 인식



현대삼호중공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목표 및 활동계획을 수립, 이행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자체 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임직원 모두 상호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다.

안전보건을 경영의 주요소로 인식,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예방과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안전보건법규 준수를 기본으로 설비 및 기계 기구의 설치, 운전보수에 있어서 보다 강화된 자체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보건 활동을 주요 책임의 하나로

부여하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 의사소통 체계를 확립하고, 관련된 모든 회사의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협회에 바리는 점

현대삼호중공업은 1997년부터 매년 협회에 의뢰하여 위험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현대삼호중공업의 위험관리 활동에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회의 진단결과 산정된 재산가액에 기초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정하고, 내재된 다양한 위험에 대하여 사고 예방과 적정한 보험가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협회에서 제시한 방재대책에 따라 전체 방재시스템이 유사시에도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항상 시설보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되는 등 화재보험협회의 위험진단은 그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해안가에 접해 있는 조선업의 특성상 풍수재해에 대하여 다른 업종보다 더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화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활동을 전개하던 협회가 진일보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분야에 대해서도 더욱 전문화된 방재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